







事物 / Ordinary object, 2012

## 유지영

사물(事物)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그 존재감이 가깝지만, 미적 표현에 있어선 인물(人)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오랜 시간 차지해 온 고찰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 Ordinary object > 는 제가 2011년부터 작업 해 온 연작으로, '일상 사물'이란 주제와 '알고 보던'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어떤 것이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고, 제게 그 표현 수단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란 듣고 있던 핸드폰이 될 수도, 주방에서 쓰던 식기 또는 지나가다 발견한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이란 너무나 익숙한 반면에 막상 관찰하면 이질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묘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 Karen Larson-Voltz

나의 작품은 사진이 찍히고 난 후의 삶에 대한 것을 다룬다. 누가 그 사진을 볼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진의 문맥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탐구하면서, 내 작업과 카메라 콜라지들은 보통 가족 사진이나 우연히 발견한 사진으로 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면, "Q의 초상화 (사/동)"이라는 사진은 나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준 나의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작품이다. 내 작업실에서 그가 자동차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나열하였다. 이는 우리가 살고있는 문화적 순간들을 반영하고 있는 사진을 찍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일상 생활을 담은 사진들을 내 출발점으로서 사용하고 참조하면서, 이런 사진들은 영면의 거울과 같이 작용한다. 한 쪽은 20세기 중반의 미국에 대한 노스웨스트, 다른 한쪽은 이미지와 그 오브제성 (object-ness)의 괴리가 존재하는 현대사진 작업을 위한 렌즈로서 이다. 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사진 작업을 자유롭게 병행하며 카메라와 작가의 손과의 관계를 밀고 가깝게 병치시킨다. "재구성된 (Reconstructed)"은 다른 날짜에 찍은 같은 공간의 사진들을 합성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소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작업하면서, 카메라가 나를 지지하는 가운데 나의 손은 내가 사물을 촉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이해하려는 여려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과 문화, 상상력과 논리를 조율하는 호기심이다. 그리스 신화 예로 들면, 린케우스는 그의 동료 아르코나우타이와 함께 여행할 때 아주 중요한 존재였는데, 왜냐하면 오그의 눈을 통해서만 신악과 지하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경로를 정하기 위해 거센 폭풍 번개의 물체를 묘사해낼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품 "모델 (the Sitter)"은 예상된 것과 실제 보이는 것의 경계 사이에서의 속고과 있다. 최근 나의 작업에서 시간은 영토이고, 내 손은 폭풍이며, 카메라는 린케우스의 눈과도 같다.

My current artwork is about the life of the image after it is taken. Who sees it? What does it symbolize? How has time changed the context surrounding the photograph? As a way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my work and in camera collages often start with familiar or found photographs. For example, A Portrait of Q (West / East), is an image that commemorates my grandfather who taught me how to use a camera. In my studio, I placed slides from his road trips as a way to connect our photographic practices while reflecting the cultural moments that we inhabit. In using and referencing vernacular photographs as my departure point, this source material functions as a two way mirror; one of mid twentieth century American nostalgia, and secondly as a lens for contemporary art practice, where the image is becoming distanced from it object-ness.

My studio practice moves fluidly between analog and digital techniques as a way to juxtapose the camera and the artist hands' relationship to close proximity and distance. Reconstructed is a photograph that is comprised of multiple images taken in the same environment but on different days as a way to reveal the character of a place. When working in this manner, my hand allows me to haptically look while the camera keeps me at bay. Historically one can find numerous attempts to understand the limits of human perception, which is a curiosity that continues to transect time, cultural boundaries, imagination and logic. For example in Greek mythology, Lynceus was indispenable during a journey with his fellow Argonauts because it was only his eyes that could see through the mountains, under the ground, and depict objects miles away to chart a path through a tempest. Similarly my work the Sitter is a rumination between expectation and the boundaries of what is visibly present. Lately I have been thinking of my artistic practice, where time is the terrain, my hand is a storm, and the camera might be the eye of Lynceus.

The represented photographs are from houses located in Kalamazoo Michigan; Pittsburgh Pennsylvania; and Milwaukee Wisconsin.

## Brett Suernicht

Brett Erich Suernicht는 작업에서 심리적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의 가변성에 대하여 연구하며 그들의 괴상함 (queerness)을 문화적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여긴다. 그들은 성, 자본주의, 가정의 안락과 관련된 문화적 계층 구조를 연구한다. Brett는 발견한 이미지, 판화 작업, 안디 잡지나 아티스트 북과 같은 매체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식의 작업을 한다.

2011년 시작한 "Show House"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사는 공간이자 공연장으로서의 집을 담고 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DIY 장소를 묘사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모델 하우스,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연장, 쿼어 공간 등과 같은 대안 공간을 기록하는데 주력하였다. 사진들은 일년 이상 유지되지 않을 일시적인 주거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Show House는 지역 주민에게 자본주의, 이성애 규범성,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아카이브다.

전시된 작품들은 미시건 칼라마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Brett Erich Suernicht considers identification to be a driving focus in their studio practice. They examine ideas of fluidity and use their queerness as a point of reference as interrupt cultural norms and standards. They look at cultural systems of classifications focusing on gender, capitalism and domestic comfort. Brett channels his work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hotography, found imagery, printmaking, zines and artist books.

Show House started in 2011 is an ongoing photographic project depicting homes that are living spaces as well as music venues. The series depicts DIY spaces throughout the midwest and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The project focus's on capturing spaces that serve as alternative venues including show houses, all ages venues, and queer spaces. The photographs show living spaces that are ephemeral and generally don't last longer than a year. Show House is an archive of space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ties that challenge capitalism, heteronormativity, and racism.

The represented photographs are from houses located in Kalamazoo Michigan; Pittsburgh Pennsylvania; and Milwaukee Wisconsin.

## 김 범 학 Beom Hak Kim

우리는 대부분 매체에서 만들어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이미지를 보고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거나 어떠한 관계를 맺어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거나 혐오감을 나타낸다.

소수자들의 성교를 최대한 미적이고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진으로 담았다. 이 사진을 보는 관객이 편견을 가진 사람을 다극적, 다문화, 그리고 학제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만들었다.

박물관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지리/미술적 역사의 경계를 풀고 박물관 작품들을 새로운 개념과 공간의 맥락으로 생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 작품을 같은 시야 안에서 감상하는 것은 성문화된 공간과 현대인 도상에 대한 새로운, 비교적인 비교를 열어준다. 또한, 신의 수동적인 시선의 역할이나 본성과 같이 미술의 역사에 대한 묘사에서 이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점도 열어준다. 더 나아가 유럽 미술 시장에서의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문제를 (예를 들어 아시아 미술 컬렉터 역사에 식민지가 끼인 영향)에도 초점을 맞춘다.

This project examines the Asia collections of the Rijksmuseum, Amsterdam, the Museum of Asian Art, Berlin, and the Musée Guimet, Paris. By the example of six major sculptural work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and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it proposes to bring these objects of culture into a transnational, cros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context by showing them side by side for the first time, i.e., outside of the conventional classificatory systems of date, style, school,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that are typically used in a museum setting.

Re-ordering the museum here means the opening of geographical and art historical boundaries, and to re-think museological objects on new conceptual terms and spatial definitions. For example, looking at these artifacts in a shared visual context reveals new and comparative vantage points on the highly codified iconographies of Buddhist and Hindu deities, as well as aspects that conventionally do not play a role in art historical narratives such as the role and nature of the deities' passive gaze. Other important questions, such as the shared experiences as a diaspora on the European art market, i.e., the colonial implications of the history of collections of Asian art, come into focus as well.



Re-ordering the Museum: Comparative Asian Sculpture/Connecting the Collections (1-2), MoM, 2015 This is My Hugging Cactus!, 2015

## Sarah Coates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마법, 열망, 그리고 재앙이 가득했던 꿈을 반영한 네러티브를 만들어낸다. 사진들은 네러티브를 보여주는 장이 된다. 사진을 한다.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다. 역사는 보통 개작 시 왜곡되거나, 그림자를 동반하거나, 열망으로 가득하다. 묘사와 설명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 다. 그 중 많은 것들은 나의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섬유 기법, 사진, 글쓰기(어머니와 아버지의 전공이자 집착이었다)가 있다. 이 사진은 어머니의 사진이지만 아버지를 더 가까이서 찍기 위해 찍은 것이다. 부엌 창문을 통해 찍은 이 사진은 산을 더 가까이서 찍기 위해 찍은 것이다.

I create narratives paralleling my childhood desires, filled with magic, longing, and disaster. These pictures are bookends to a narrative. They are the looking back. Histories often warp in the retelling, hold shadows, are hard, or are slick with longing. I use a variety of materials and processes in my creation of these narratives. Many of them are connected to my parents, such as textiles, photography, and writing (my mother and my father's obsession and profession). This photograph of my mom I took to get closer to my father. This photograph through my kitchen window I took to get closer to the mountain.

This project examines the Asia collections of the Rijksmuseum, Amsterdam, the Museum of Asian Art, Berlin, and the Musée Guimet, Paris. By the example of six major sculptural work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and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it proposes to bring these objects of culture into a transnational, cros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context by showing them side by side for the first time, i.e., outside of the conventional classificatory systems of date, style, school,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that are typically used in a museum setting.

Re-ordering the museum here means the opening of geographical and art historical boundaries, and to re-think museological objects on new conceptual terms and spatial definitions. For example, looking at these artifacts in a shared visual context reveals new and comparative vantage points on the highly codified iconographies of Buddhist and Hindu deities, as well as aspects that conventionally do not play a role in art historical narratives such as the role and nature of the deities' passive gaze. Other important questions, such as the shared experiences as a diaspora on the European art market, i.e., the colonial implications of the history of collections of Asian art, come into focus as well.

## Blond Jenny

두 가지 다른 이상향이나 이념을 한가지로 만들어 더 나은 이상적인것을 제안한다. 미국에 건너와 작업을 하면서 노스웨스트 시리즈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멋진 사진과 영상으로 두가지 삶의 이야기를 한다. 서구 음식에 길들여져야하는 자신, 보고싶은 가족, 본인이 서 있는 장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어 한국 국가가 정해진 땅에 한국 음식과 섞여있는 서양 음식이 자리잡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블론드 제니, 좋아하는 음식을 American Bear 라는 상징적인 캐릭터를 통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의 스티븐선 열성, 그리고 가족들이 걸여된 상황을 외국모임과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실제로도 가깝게 지내면서 작업한 Happy Father's Day 와 Happy Mother's Day으로 전개된다.

미국인 남편과의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Fairy Tale 에 관심을 갖게된다. 아버님이 사는 Pennsylvania 와 어머니님 사시는 Santa Cruz 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과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생각은 Nazareth Mermaid, Father Land, Mother Land, 그리고 Mermaid Land 와 같이 현실에는 없지만, 타이틀과 Mermaid 이미지로 재구성된 사진들 통해 현실과 이현을 하나의 단편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이상향을 담은 Diamond Space Garden, Himalaya Diamond 등의 우주 스페이스와 허말라야등과 같은 눈이덮힌 아름다운 자연이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나가 된 이미지를 디지털 사진으로 작업하고 있고, 이렇게 작업중에 사용된 블론드 제니는 어릴적 TV 에 등장한 만화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핸드메이드 가면을 사용한 작가의 퍼포먼스이다.

My work tells the story of the two sides of my life. I've been using both photography and painting to convey imagery that consists of true and false, reality and fiction. I express opposite ideals (North and South Korea, Apple and Samsung , Korea and America, Western United States and Eastern United States). My artwork shows the utopia of different ideas coexisting together for a better good. In my work two different images are connected by one. For example, my imaginary animation character with real humans or a sculpture of bear highlight issues of communication. My work is based on things I love like a bear, family, friends, and my national identity. Taking a bear as an example, I made a story which about an American bear. I talk about the American bear and Jenny which is my fantasy character. They are strangers that become friends. I like telling a story using a character in short stop motion format as inspired by Charlie Chaplin movies.

After I married my American husband, I feel more compelled to talk about places in the USA. I want to capture the beautiful landscapes and great views with my funny alter ego, Blond Jenny. I use a handmade mask of the character of the 1980's cartoon because Blond Jenny was my fantasy character since childhood. I am now more comfortable with American subject matter because it is my new home and homeland (Blond Jenny).

## 문 해 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부터 시작한다.

어린시절 가지고 놀았던법한 물건들로 얼굴과 몸을 숨기지만

내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듯이, 어린시절로 돌아갈 수 없듯이 완전히 숨을 수는 없다.

세월이 흐르고 주변에 모든 것들은 변했지만 자판기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단순히 낡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는 빈티지처럼 지나온 시간만큼 인공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흔적들로 뒤덮이게 된다. 그 흔적은 각 자판기마다 묻어 나와 지나게 되는 색도 느낌도 다 다르다.

미국인 남편과의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Fairy Tale 에 관심을 갖게된다. 아버님이 사는 Pennsylvania 와 어머니님 사시는 Santa Cruz 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과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생각은 Nazareth Mermaid, Father Land, Mother Land, 그리고 Mermaid Land 와 같이 현실에는 없지만, 타이틀과 Mermaid 이미지로 재구성된 사진들 통해 현실과 이현을 하나의 단편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이상향을 담은 Diamond Space Garden, Himalaya Diamond 등의 우주 스페이스와 허말라야등과 같은 눈이덮힌 아름다운 자연이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나가 된 이미지를 디지털 사진으로 작업하고 있고, 이렇게 작업중에 사용된 블론드 제니는 어릴적 TV 에 등장한 만화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핸드메이드 가면을 사용한 작가의 퍼포먼스이다.

My work tells the story of the two sides of my life. I've been using both photography and painting to convey imagery that consists of true and false, reality and fiction. I express opposite ideals (North and South Korea, Apple and Samsung , Korea and America, Western United States and Eastern United States). My artwork shows the utopia of different ideas coexisting together for a better good. In my work two different images are connected by one. For example, my imaginary animation character with real humans or a sculpture of bear highlight issues of communication. My work is based on things I love like a bear, family, friends, and my national identity. Taking a bear as an example, I made a story which about an American bear. I talk about the American bear and Jenny which is my fantasy character. They are strangers that become friends. I like telling a story using a character in short stop motion format as inspired by Charlie Chaplin movies.

After I married my American husband, I feel more compelled to talk about places in the USA. I want to capture the beautiful landscapes and great views with my funny alter ego, Blond Jenny. I use a handmade mask of the character of the 1980's cartoon because Blond Jenny was my fantasy character since childhood. I am now more comfortable with American subject matter because it is my new home and homeland (Blond Jenny).

## 오 화 연

CIGARETTEN

-골목마다 자리잡고 있는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는 담배 자판기.

세월이 흐르고 주변에 모든 것들은 변했지만 자판기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단순히 낡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는 빈티지처럼 지나온 시간만큼 인공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흔적들로 뒤덮이게 된다. 그 흔적은 각 자판기마다 묻어 나와 지나게 되는 색도 느낌도 다 다르다.

미국인 남편과의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Fairy Tale 에 관심을 갖게된다. 아버님이 사는 Pennsylvania 와 어머니님 사시는 Santa Cruz 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과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생각은 Nazareth Mermaid, Father Land, Mother Land, 그리고 Mermaid Land 와 같이 현실에는 없지만, 타이틀과 Mermaid 이미지로 재구성된 사진들 통해 현실과 이현을 하나의 단편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이상향을 담은 Diamond Space Garden, Himalaya Diamond 등의 우주 스페이스와 허말라야등과 같은 눈이덮힌 아름다운 자연이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나가 된 이미지를 디지털 사진으로 작업하고 있고, 이렇게 작업중에 사용된 블론드 제니는 어릴적 TV 에 등장한 만화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핸드메이드 가면을 사용한 작가의 퍼포먼스이다.

My work tells the story of the two sides of my life. I've been using both photography and painting to convey imagery that consists of true and false, reality and fiction. I express opposite ideals (North and South Korea, Apple and Samsung , Korea and America, Western United States and Eastern United States). My artwork shows the utopia of different ideas coexisting together for a better good. In my work two different images are connected by one. For example, my imaginary animation character with real humans or a sculpture of bear highlight issues of communication. My work is based on things I love like a bear, family, friends, and my national identity. Taking a bear as an example, I made a story which about an American bear. I talk about the American bear and Jenny which is my fantasy character. They are strangers that become friends. I like telling a story using a character in short stop motion format as inspired by Charlie Chaplin movies.

After I married my American husband, I feel more compelled to talk about places in the USA. I want to capture the beautiful landscapes and great views with my funny alter ego, Blond Jenny. I use a handmade mask of the character of the 1980's cartoon because Blond Jenny was my fantasy character since childhood. I am now more comfortable with American subject matter because it is my new home and homeland (Blond Jenny).

## Rebecca Drolen

"Hair Pieces"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향해 가지는 번덕스러움에 대해 살펴본 작품이다. 어떤 머리카락은 소유하고 싶은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구성적 접근법은 정면의 건물들을 격리시켜 보는 이가 벽의 창문과 출입구를 통해 그 안의 열린 공간에 대한 깊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복적이고 급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체보다 더 오래 보존되며 죽음과 부패를 거스르기도 한다.

나는 사람과 머리카락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과 기괴함에 흥미가 있다. 머리 스타일로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자아상에 대한 규칙들도 흥미롭다. 본 작품에서는 사진과 자화상을 중간 매체로 사용하여 시각적 유체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평가로 사용되는 묘사들을 작성했다. 이러한 사진과 그림에서 표현되는 아름다움과 혐오스러움이 성장과 거부에 대한 이야기 할 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 이야기들이 머리카락과 그 모양의 초현실적인 관계를 들여다볼 것이다.

Hair Pieces explores the fickle relationship most have with their body hair. We consider some hair very desirable and grow and groom it with care, while we treat other hair as shameful and cover or remove it. Once hair has become disconnected from our bodies, we treat it with disgust, yet it has an archival, lasting presence that outlives the body and defies death and decay. I am interested in the line between the beautiful and the grotesque in our connection with hair. I am intrigued by the rules that guide our ideas and self-image in relation to our tresses. In the work, I use photography and the self-portrait as a medium to construct narratives that function both as visual puns and, at times, as social critique. I hope to use the beautiful alongside the repulsive in these images to tell stories of growth and removal as they examine a surreal relationship between hair and its place.

I am interested in the line between the beautiful and the grotesque in our connection with hair. I am intrigued by the rules that guide our ideas and self-image in relation to our tresses. In the work, I use photography and the self-portrait as a medium to construct narratives that function both as visual puns and, at times, as social critique. I hope to use the beautiful alongside the repulsive in these images to tell stories of growth and removal as they examine a surreal relationship between hair and its place.

I am interested in the line between the beautiful and the grotesque in our connection with hair. I am intrigued by the rules that guide our ideas and self-image in relation to our tresses. In the work, I use photography and the self-portrait as a medium to construct narratives that function both as visual puns and, at times, as social critique. I hope to use the beautiful alongside the repulsive in these images to tell stories of growth and removal as they examine a surreal relationship between hair and its place.

## Lindsay Hill

나의 사진 작품들은 내가 자란 동쪽 텍사스 지역을 형식적이고 건축학적인 접근법으로 보여 준다. 그녀의 연구는 중국,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문화 사이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지형과 지리에서 예상된 패턴이 아니라 예측되지 않은 패턴에 흥미를 가졌다.

그녀의 주된 관심 분야는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빨래 너는 방법 또는 지리와 사교방식의 연관성과 같이 문화를 조율하는 세계적인 상징 및 연관성이다. 그녀의 사진은 "심리-지리학적" 조사와 같다. 세상을 더 직관적으로 보는 접근법에 관한 것이다.

작가의 아날로그 사진들은 색감, 빛, 그림자, 그리고 구도도 아름답고 두려운 감정을 이끌어내는 송곳날 매력에 있다. 사진들은 직접적인 환경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검정과 인간 조건에 대한 작가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다. 아날로그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인 방법을 결합한 Ren 의 작품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With a field-driven approach, Ding Ren's practice examines cross-cultural patterns at the junction between the foreign and the familiar. Her work is informed by the experience of living in-between cultures: betwee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Instead of obvious patterns, she is interested in the ones that are subtle and nuanced—traces in the topography and geography. She is primarily interested in universal symbols and connections that can transcend cultures, through common everyday observations like the way laundry is hung to dry an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y and mindset. Her photography is a type of "psycho-geographic" investigation, it is about a more intuitive approach towards seeing the world.

The analogue photographs of color, light, shadow and textural forms possess sublime qualities that conjure up feelings of both beauty and fear. These photographs are meant to show a connectedness with the immediate environment as well as express an inner personal state that stems from Ren's interest in emotions and the human condition. By combining an intuitive way of working with analogue photographic processes, Ren's work provides both physical and conceptual stability to an otherwise fast-paced and fleeting world.

The analogue photographs of color, light, shadow and textural forms possess sublime qualities that conjure up feelings of both beauty and fear. These photographs are meant to show a connectedness with the immediate environment as well as express an inner personal state that stems from Ren's interest in emotions and the human condition. By combining an intuitive way of working with analogue photographic processes, Ren's work provides both physical and conceptual stability to an otherwise fast-paced and fleeting world.

## Ding Ren

Ding Ren의 연구에서는 현장 접근 방법으로 해외와 모국의 접합점에서의 비교 문화 패턴을 조사한다. 그녀의 연구는 중국,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문화 사이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지형과 지리에서 예상된 패턴이 아니라 예측되지 않은 패턴에 흥미를 가졌다.

그녀의 주된 관심 분야는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빨래 너는 방법 또는 지리와 사교방식의 연관성과 같이 문화를 조율하는 세계적인 상징 및 연관성이다. 그녀의 사진은 "심리-지리학적" 조사와 같다. 세상을 더 직관적으로 보는 접근법에 관한 것이다.

작가의 아날로그 사진들은 색감, 빛, 그림자, 그리고 구도도 아름답고 두려운 감정을 이끌어내는 송곳날 매력에 있다. 사진들은 직접적인 환경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검정과 인간 조건에 대한 작가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다. 아날로그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인 방법을 결합한 Ren 의 작품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With a field-driven approach, Ding Ren's practice examines cross-cultural patterns at the junction between the foreign and the familiar. Her work is informed by the experience of living in-between cultures: betwee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Instead of obvious patterns, she is interested in the ones that are subtle and nuanced—traces in the topography and geography. She is primarily interested in universal symbols and connections that can transcend cultures, through common everyday observations like the way laundry is hung to dry an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y and mindset. Her photography is a type of "psycho-geographic" investigation, it is about a more intuitive approach towards seeing the world.

The analogue photographs of color, light, shadow and textural forms possess sublime qualities that conjure up feelings of both beauty and fear. These photographs are meant to show a connectedness with the immediate environment as well as express an inner personal state that stems from Ren's interest in emotions and the human condition. By combining an intuitive way of working with analogue photographic processes, Ren's work provides both physical and conceptual stability to an otherwise fast-paced and fleeting world.

Two White Shirts, 2015 A Set of Lungs Breath In and Out, 2015

Parking Garage, 2015 Bleich, 2015 Farm in Garrison, 2015

Longer Lashes, 2012 Drainage, 2012

3Mainzer, 2, 2013 Diamond Garden #2, 2015 Mermaid Island #3 (Performance Art), 2015

상상 속 속박작품 #08, 2015 상상 속 속박작품 #02, 2015

Diamond Garden, 2015 Diamond Garden #2, 2015 Mermaid Island #3 (Performance Art), 2015

MoM, 2015 This is My Hugging Cactus!, 2015

Re-ordering the Museum: Comparative Asian Sculpture/Connecting the Collections (1-2), MoM, 2015 This is My Hugging Cactus!, 2015

Gender-1, 2013 Gender-3, 2013

Casa Mona, 2015 222 Ormsby, 2015 Derek Zoolander Center, 2014

Portrait of Q (West/ East), 2014 Reconstruct, 2012 The Sitter, 2014

事物 / Ordinary object, 2012

### CICA Museum

www.cicamuseum.com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196-30  
196-30, Samdo-ro,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415-843  
031-988-6363  
cicamuseum@gmail.com

김범학

김지훈

문해리

배지윤

신선우

오화연

유지영

조상은

Jeff Beekman

Jesse Chun

Sarah Coates

Adrienne Defendi

Luc Demers & Peter Precourt

Geoff Delancy

Rebecca Drolen

Heidi Haire

Lindsay Hill

Blond Jenny

C. Matthew Luther

Robin Luther

Stephanie Paine

Ari Salomon

Isabel Seliger

Ding Ren

Brett Suernicht

Karen Larson-Voltz